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2012. 4.

목 차

Executive Summary	1
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6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7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가. 자본유치 효과	12
나. 생산성 증대 효과	13
다. 산업구조조정 효과	13
라. 고용창출 및 유지 효과	14
3.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	
가. 분석대상 데이터 특성	16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현황 및 특징	18
다. Invest KOREA를 통한 고용현황 및 특징	23
4. 고용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제	
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고용효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편	28
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투자기업의 정책적 지원	29

Executive Summary

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외환위기 직후 큰 폭으로 확대된 후 2001년에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증가세 없이 정체상태를 보임
- ▶ 반면 1990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06년 이후 급증하며,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현상이 심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倍)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순유출액	-1,890	8,171	19,489	25,100	19,231	21,292	30,827
순유출 배수	0.84	1.73	2.85	3.14	2.67	2.63	3.26

주: 신고기준. 순유출액은 해외직접투자(유출)금액과 외국인직접투자(유입)금액의 차이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계산

-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현상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기업우위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내 투자부진 및 일자리 감소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이슈화 됨
- ▶ 외환위기로 인한 긴급 매각성 투자유입의 동력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향후 국내 산업기반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 증대 등 경제발전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적
- ▶ 한국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투자부진과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기업의 자체적인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 가능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가. 자본유치 효과

- ▶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인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 없이 대규모의 안정적인 해외자본을 장기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해외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설비 및 생산시설에 투자되는 경우 현지 지역개발 효과는 물론 및 설비 운영 생산에 필요한 2차적인 투자가 수반됨으로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효과도 수반

나. 생산성 증대 효과

- ▶ 외국인 투자자의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의 국내 도입 과정에 있어서 이를 체득한 인적자원 및 무형자산, 노하우의 국내 확산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구현 가능하며,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신뢰도를 기반으로 수출확대효과도 기대

다. 산업구조조정 효과

- ▶ 새로운 자본 및 혁신기술의 유입은 기존 국내시장 참여기업들의 경쟁구도를 촉진시켜 기술혁신과 효율성 추구의 선순환을 통해 시장구조의 재편 및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 내 경쟁구도 강화로 인한 취약기업의 퇴출은 단기적으로 실업 및 기업도산 등의 반작용이 발생하지만, 특정 산업 내 잉여 자원이 타 산업의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효율성이 증대

라. 고용창출 및 유지 효과

- ▶ 외국인직접투자는 새로운 공장설립을 통한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M&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인수 후 실시되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제기되지만,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의 경우 외국자본 유입을 통해 파산에 따른 대량 실업방지 효과 및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순기능이 존재

3.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

- ▶ 외국인투자기업 고용현황 분석을 고용노동부의 협조 하에 고용보험자료와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자료를 결합하여 최근 5개년간의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현황을 산정

<외국인투자 고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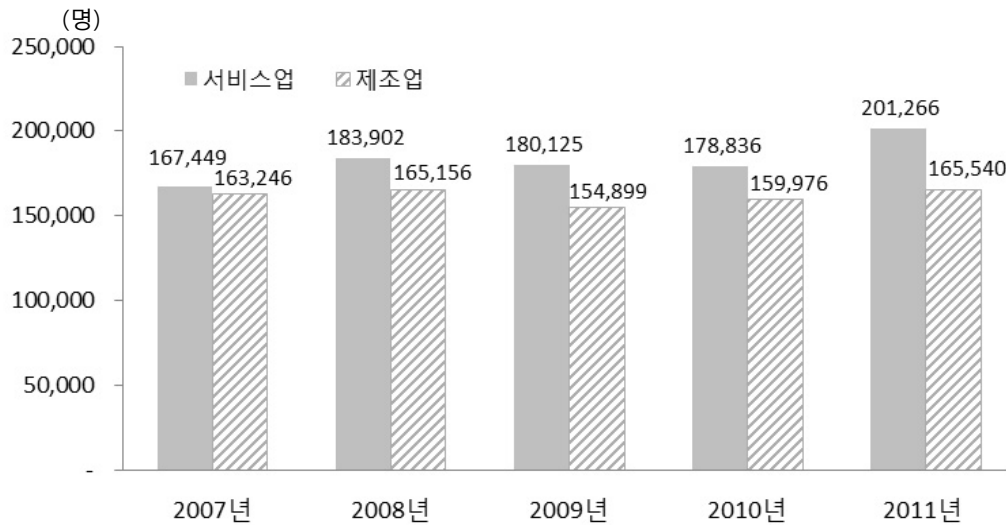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전체 고용인원	외투기업고용	외투기업고용비중	외국인투자고용 (지분율반영)	외국인투자 고용비중 (지분율반영)
2007	8,941,639	577,042	6.45%	333,050	3.72%
2008	9,271,701	624,627	6.74%	351,958	3.80%
2009	9,653,678	594,779	6.16%	337,874	3.50%
2010	10,131,058	604,557	5.97%	341,654	3.37%
2011	10,675,437	626,461	5.87%	369,171	3.46%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

- ▶ 외투기업의 업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유통), 비즈니스서비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가율이 두드러지며,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기계장비, 화공 등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세를 보여온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의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현황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의 고용이 꾸준히 제조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 현황>



주: 농림수산업, 광업, 전기가스 등 기타산업은 제외, 서비스업에 금융업 포함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의 투자가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서구선진국들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 모기업 국적별 對韓투자기업수는 일본, 미국, 독일이 고용인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말레이시아 등 금융 허브국들이 국내 다수의 기업에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Invest KOREA의 고용기여(유지 및 신규창출) 측정의 경우,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 등록된 기업들 중 최근 3년 이내 신규투자 또는 증액 투자와 관련하여 Invest KOREA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외투기업의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자체 실적을 산정
- ▶ Invest KOREA 기여 신규 고용인원은 2008년 6,476명, 2009년 5,434명, 2010년 3,790명, 2011년 9,814명으로 연도별 큰 등락 편차를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고용자료 축적과 관찰이 이루어지면 보다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고용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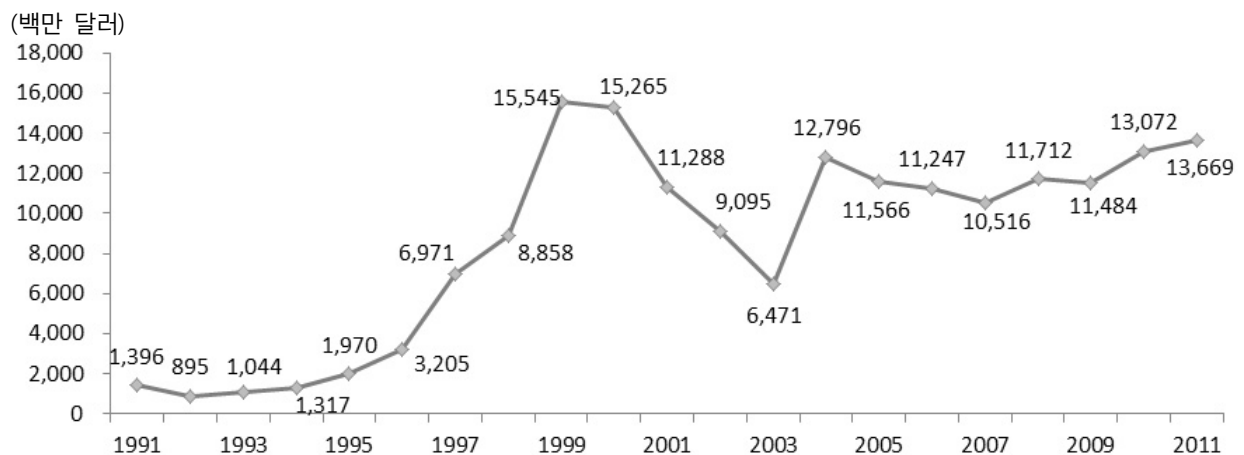
- ▶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확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이 국내기업의 투자만으로는 경제수준의 유지 및 성장에 있어 한계가 존재
- ▶ 한국의 경우 고용창출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측면에 대한 고려는 부족
- ▶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고용창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기술의 저비용구조 고용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산업 및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함
- ▶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과 관련된 對韓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관련 통계데이터의 확보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
- ▶ 투자자 지원 평가는 물론 투자유치기관의 실적평가에도 고용관련 항목을 반영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과 절차마련이 중요
- ▶ 장기적으로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지원은 내국기업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유턴투자 등 투자주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투자로 인한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함

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990년대 초반 국제적인 경기 호황을 기반으로 본격화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하다 1997년 11월 발생한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증가
 - 외환위기로 인해 정부 주도의 긴급 외자유치성 투자유치가 실시되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급격히 증가
 - 외환위기 직후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증가세 없이 정체상태를 보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주: 신고기준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 외환위기로 인한 긴급 매각성 투자유입의 동력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향후 국내 산업기반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 증대 등 경제발전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적

- 국내 기업들의 내수시장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적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의 활성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

□ 1990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이후 급증하며,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현상이 심화

-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외환위기로 인한 긴급 외자유치성 투자가 집중된 이후 현재까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에 그치고 있음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주: 신고기준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1997년까지 일정수준 동반 성장하던 패턴을 보이다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상회한 후,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상승

-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은 2006년 약 8억 달러에서 이듬해 2007년 19억 달러, 2008년 25억 달러, 2009년 19억 달러, 2010년 21억 달러, 그리고 지난 2011년에는 약 31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와의 차이가 심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해외직접투자	9,676	19,418	30,005	36,812	30,715	34,363	44,496
외국인직접투자	11,566	11,247	10,516	11,712	11,484	13,071	13,669

주: 신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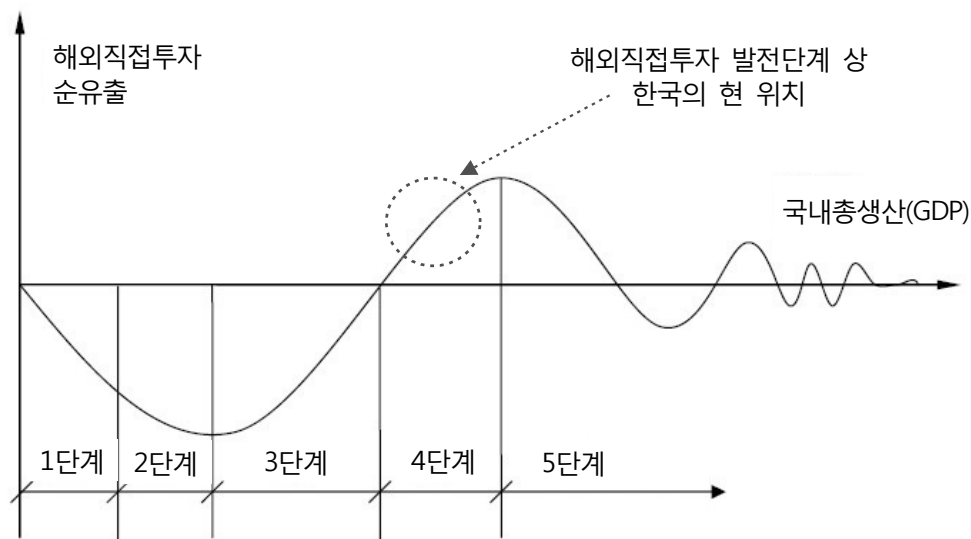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공시자료를 정리

- 2000년대 후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급증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증가 현상은 국내 글로벌기업 성장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와 공격적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확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이러한 현상은 Dunning의 국제투자경로이론(Investment Development Path)에 비추어 설명이 가능
- Dunning은 국제투자경로이론(IDP)을 통해 경제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한 나라의 경제 발전단계에 맞춰 해당국의 기업이 보유한 고유의 우위가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이 일정한 패턴의 변화를 보임을 주장
- 1단계는 경제발전수준이 매우 낮아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보다는 소규모 대외교역에 의존
 - 2단계는 일정수준 경제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입지 요건이 향상되어 외국기업에 의한 자원개발, 수입대체산업, 저임금 비숙련 노동력 제공에 따른 투자

유치가 본격화

- 3단계는 국내시장 및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역량이 향상되어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기 시작

<Dunning의 국제투자경로이론상 한국의 위치>



자료: Dunning, J.H. and Narula, R. 1996,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Revisited: Some Emerging Issues", in Dunning, J.H. and Narula, R., ed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ments: Catalysts for Economic Restructur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4단계는 3단계의 특성이 심화되어 해외직접투자의 상승세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상회하게 되는 시기로 현재 한국이 속하는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음
 - 향후 5단계부터는 산업 전반의 고른 경제성장에 기반 하여 미국, 독일 등 투자선진국들과 같이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간의 수지(收支)가 0으로 수렴하는 균형 잡힌 투자 증가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현상은 국제투자경로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경제 발전과 기업우위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국내 투자부진 및 일자리 감소 문제와 동일선상에

서 이슈화 됨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실시에는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인한 무역장벽 타개, 저임금 활용을 위한 진출, 현지시장 접근성 확보, 원자재 및 기술접근 등 다양한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목적이 원자재 확보 및 기술접근인 경우 내수투자 및 고용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으나, 저임금 노동력 및 현지시장 접근성 확보, 무역장벽 타개를 위한 해외진출 시 국내 사업장의 축소 및 폐쇄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고용감소로 이어짐

□ 특히 한국의 경우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비해 해외직접투자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폭등하여 투자공백 및 일자리 감소 등에 대비할 완충기간이 부족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倍)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순유출액	-1,890	8,171	19,489	25,100	19,231	21,292	30,827
순유출 배수	0.84	1.73	2.85	3.14	2.67	2.63	3.26

주: 신고기준. 순유출액은 해외직접투자(유출)금액과 외국인직접투자(유입)금액의 차이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계산

- 이러한 투자부진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내수시장 위축을 통해 다시 투자 및 고용의 약세를 가져오는 부정적 연쇄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높음
- 또한 고도 기술 집약적 산업 및 국가 정책상 중요한 부품소재, 신기술,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투자공백은 산업기반 잠식과 空洞化 현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전략의 수립이 시급

- 한국 제조업 부문의 전반적인 투자부진과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기업의 자체적인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 가능
- 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가. 자본유치 효과

- 외국인직접투자는 직접적인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 없이 대규모의 안정적인 해외자본을 장기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키는 효과를 가져 옴
 - 특히, 해외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설비 및 생산시설에 투자되는 경우 현지 지역개발 효과는 물론 및 설비 운영 생산에 필요한 2차적인 투자가 수반됨으로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효과도 수반
 - 실제로 한국의 경우 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의 해결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시간 내에 가용외환보유고의 확충이 가능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에 진입한 글로벌 대형 기업의 네트워크와 자본동원력을 통해 국내시장으로의 자본조달은 물론 국제금융시장 활용에 있어 접근성의 우위를 가져다 줌
 - M&A 및 지분매각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우도 안정적인 자본조달처를 확보하는 차원으로도 활용되며, 특히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경우 금융권을 통한 방식보다는 지분매각을 통해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방식을 제공
- 그린필드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자본을 활용한 설비투자 통해 투자대상국에 직접적인 자본증가효과를 가져오며, 이를 기반으로 운영 및 생산에 필요한 추가적 자원의 재투입 과정에서 현지국 산업에 2차적인 자본증가 파생효과를 발생시킴

- 해외자본의 직접적인 재투자 외에 첨단 설비 신설 및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은 시장 내 새로운 구매자를 목표로 한 국내 연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내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발생

나. 생산성 증대 효과

- 외국인 투자자의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의 국내 도입 과정에 있어 이를 취득한 인적자원 및 무형자산, 노하우의 국내 확산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구현
 - 외국인투자기업의 선진 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은 이들 기업과 교류하는 연관 기업들에게 이전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도 가능
 -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신뢰도를 기반으로 수출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수출용으로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품에 국제기준의 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품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최신 국제 기술/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도 용이
 - 그러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도입 이슈는 핵심 기술의 해외이전이 잠재적 경쟁자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일반적인 속성 상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부분이며, 기술도입을 목적으로 한 투자유치 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의 제공 및 강력한 협상력이 요구됨

다. 산업구조조정 효과

- 새로운 자본 및 혁신기술의 유입은 기존 국내시장 참여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여 기술혁신과 효율성 추구의 선순환을 통해 시장구조의 재편 및 산업고도

화에 기여

- 외국 자본 및 기술의 유입은 기존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경쟁력에 따라 자극제로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산업 내에서 도태되어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기능으로도 작용
- 산업 내 경쟁구도 강화로 인한 취약기업의 퇴출은 단기적으로 실업 및 기업도산 등의 반작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특정 산업 내 잉여 자원이 타 산업의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효율성이 증대

라. 고용창출 및 유지 효과

- 외국인직접투자는 새로운 공장설립을 통한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M&A를 통한 기존기업의 인수의 경우는 고용유지의 기능을 담당
- 외국인투자의 유입으로 관련 설비 및 생산기반이 확장되는 경우와 이를 통해 전후방 연관기업의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자체는 물론 관련기업의 동반 고용창출 효과도 가능
-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실시될 경우 외국 모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에 기반 하여 현지기업에 비해 높은 임금의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지국의 소비 및 투자가 진작되는 경우 경기 활성화 및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성에 기여
- M&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인수 후 실시되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제기되지만,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의 경우 외국자본 유입을 통해 파산에 따른 대량 실업방지 효과 및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 안정

이라는 기본적 순기능이 존재

- 최근 계속되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국내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인한 취업률 하락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 고용관련 지표는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성과로서 세계적으로 이미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실업률 등 고용지표의 안정 및 개선여부가 중요한 경제 운용성과로 이미 자리잡음
 - 한국도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을 통한 근로계층의 확대가 경제발전의 근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우선과제로 채택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투자 및 고용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효과에 관심이 집중
 -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의 점검이 필요

3.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

가. 분석대상 데이터 특성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협조 하에 고용보험자료와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대상 데이터를 추출
 - － 최근 5개년(2007-2011) 말 기준 현존 외국인투자기업 리스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기업 데이터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결
 - － 2011년 이전 한국 철수 및 폐업, 외국인투자기업 지위 상실 등으로 등록말소 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경우 리스트를 별도로 추출하여 각 연도 별 현존리스트에 추가하여 데이터를 보완
 - － 고용효과의 특성상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간 1만 여개의 외투법인 중 자료상의 한계로 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자료와 매칭되는 최종 분석 가능 법인 수는 연간 6천여 개로 집계

<분석대상 기업>

(단위: 개)

연도	각 년도 말 현존 외투법인	고용보험가입 확인기업
2007	10,355	6,128
2008	10,937	6,322
2009	9,658	6,370
2010	9,808	6,458
2011	10,315	6,699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

- － 전체 외투법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분석대상에서 누락되며, 각 연도별 현존 외투법인 대비 고용자료(고용보험가입기업) 확보율은 2007년 59.2%, 2008년 57.8%, 2009년 66%, 2010년 65.8%, 2011년 64.9%임
 -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공시하는 2011년 말 고용보험통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고용보험데이터는 취업자 대비 피보험자의 비중이 2011년 말 기준으로 44.3%(임금근로자 대비 61.0%, 상용·임시근로자 대비 67.5%)로, 다른 고용자료에 비해 고용인원 측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산출되는 엄격한 구조를 지님
-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인원의 직접적인 산출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연간 전체 피보험자 수를 한국전체 고용인원 모집단으로 함

<분석대상 고용인원(피보험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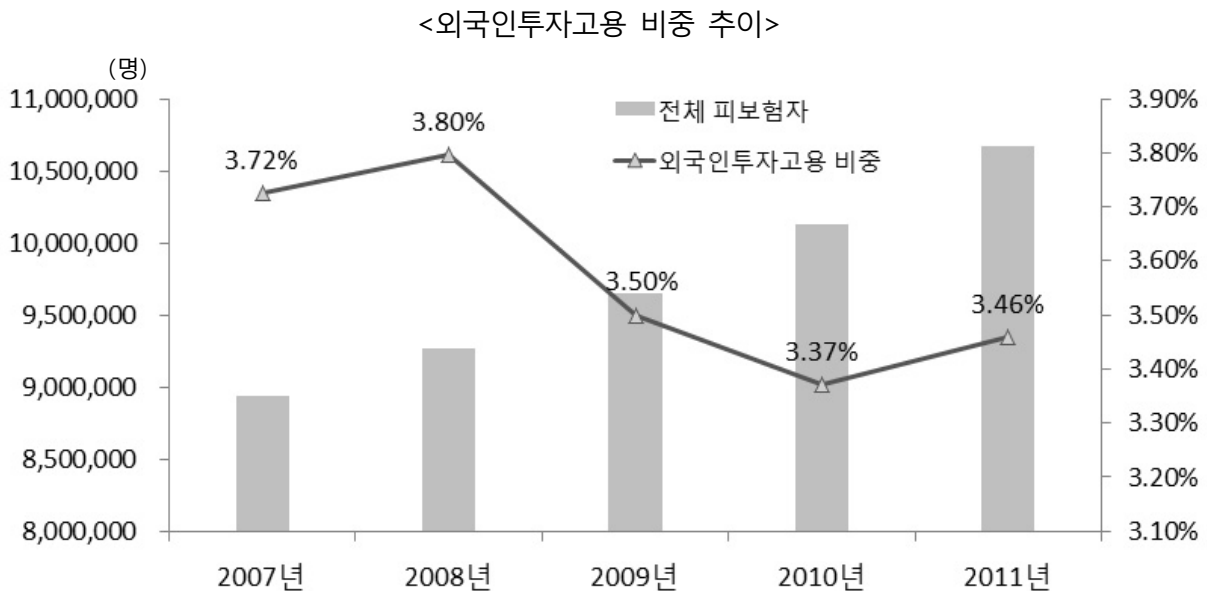
연도	전체 고용인원	외투기업고용	외투기업고용비중	외국인투자고용 (지분율반영)	외국인투자 고용비중 (지분율반영)
2007	8,941,639	577,042	6.45%	333,050	3.72%
2008	9,271,701	624,627	6.74%	351,958	3.80%
2009	9,653,678	594,779	6.16%	337,874	3.50%
2010	10,131,058	604,557	5.97%	341,654	3.37%
2011	10,675,437	626,461	5.87%	369,171	3.46%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

- － 상기 표에서 “외투기업고용”은 외국인투자를 받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전체 고용인원을 의미하며, “외국인투자고용”은 외투기업고용 인원내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중을 반영하여 다시 산출한 수치임
-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을 다룬 외부기관의 기존 발표 자료에서는 대부분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소속된 전체

피보험자(외투기업고용)를 고용인원으로 집계한 반면,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반영(외국인투자고용)하여 고용인원을 계산

-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을 반영하지 않은 최근 5년간 외투법인 피보험자의 비중은 최소 5.87%(2011년)에서 최대 6.74%(2008년)로 5~6%대를 기록한 반면, 지분율이 반영된 외투법인의 고용 비중은 모두 3%대로 나타남
- 지분율을 반영했을 때 2011년 말 기준 전체 고용인원 1,067만 5천 명 중 외투법인의 고용인원은 36만 9천여 명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2007년 이후 전체 피보험자와 외투기업의 피보험자가 모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고용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피보험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현황 및 특징

□ 외투기업의 업종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유통), 전기·전자, 비즈니스서

비스, 운송용 기계, 금융·보험 부문 순으로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도·소매(유통), 비즈니스서비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증가율이 두드러지며,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기계장비, 화공 등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세를 보여온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의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 2000년대 중반 시중 은행 및 보험사 등 대형 외국인투자가 집중되었던 금융·보험업의 경우 2008년을 기점으로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국내 금융부문의 대규모 고용인원을 차지하고 있던 시티은행(舊 한미은행), 스탠다드차터드은행(舊 제일은행) 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지배구조가 변동되며 국내법인화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집계에서 사라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고용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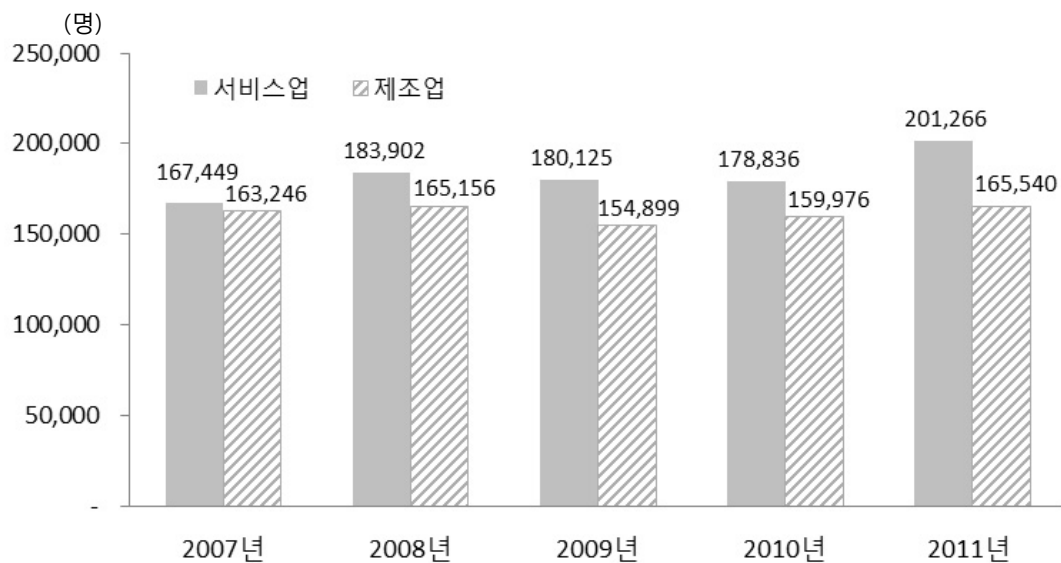
대표업종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도·소매(유통)	63,404	70,701	76,803	81,205	93,555
전기·전자	57,669	52,747	48,075	51,784	51,905
비즈니스서비스업	35,851	41,488	40,763	44,324	49,805
운송용기계	38,778	41,382	38,763	40,521	40,522
기계·장비	18,370	20,233	18,876	19,246	21,129
화공	18,764	19,827	20,076	19,729	20,962
음식·숙박	13,109	15,031	18,497	16,164	20,087
금융·보험	33,677	34,507	21,650	15,183	16,052
운수·창고(물류)	10,531	11,172	10,613	10,958	11,437
금속	6,518	6,816	6,894	7,071	8,243
의약	4,768	5,024	5,350	5,824	6,031
식품	7,086	7,533	6,212	5,298	5,751
비금속광물	4,256	4,793	4,038	4,315	4,558
부동산·임대	4,230	4,535	4,294	3,765	3,748

섬유·직물·의류	2,673	3,156	3,137	2,895	3,110
문화·오락	2,243	2,294	2,150	2,101	2,427
공공·기타서비스	1,978	2,547	2,391	1,828	2,185
기타제조	2,442	2,267	2,066	1,905	2,011
통신	2,427	1,626	2,964	3,309	1,970
제지·목재	1,923	1,380	1,412	1,388	1,317
광업	152	459	526	569	632
종합건설	938	1,167	1,140	1,163	616
전문직별건설	480	480	441	482	542
농·축·임업	580	549	524	455	413
전기·가스	197	242	211	170	161
어업	7	3	8	3	2
총 합계	333,050	351,958	337,874	341,654	369,171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현황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의 고용이 꾸준히 제조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 현황>



주: 농림수산업, 광업, 전기·가스 등 기타산업은 제외, 서비스업에 금융업 포함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 관찰시작시점인 2007년부터 서비스업의 한국 내 고용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의 경우는 소규모의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서비스업의 국내 고용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섬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의 투자가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서구선진국들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모기업 국적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현황>

(단위: 명)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본	68,472	72,468	72,309	73,974	82,189
미국	64,907	66,447	66,268	64,075	69,974
네덜란드	53,724	54,740	50,167	50,972	57,018
독일	18,696	20,426	20,714	21,899	24,194
영국	20,811	22,689	18,206	17,750	16,778
프랑스	11,495	11,929	11,982	12,374	12,971
스위스	8,139	9,433	9,333	9,716	10,384
아일랜드	8,360	8,802	8,516	8,975	10,323
싱가포르	7,466	8,822	7,437	8,836	10,218
호주	9,580	9,960	10,159	10,404	10,140
홍콩	4,380	5,109	6,472	6,508	6,783
케이만군도	5,263	5,262	5,573	6,147	6,176
말레이시아	10,716	10,763	5,164	5,524	5,615

주: 2011년 기준 고용인원 순 상위 15대 국가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

- 네덜란드의 경우는 지역본부와 같이 특정 사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특수사업활동 특혜국(tax resort)으로, 유럽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많이 위치하고 있어 네덜란드를 우회투자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홍콩, 케이만군도, 말레이시아 등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이들 국가를 통해 기업의 M&A 및 지분매입,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일본은 2011년 기준 한국 투자를 통해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한 국가이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대지진, 원전사태 등으로 자국의 생산시설 및 사업근거지를 대체할 해외투자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대상국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음
- 모기업 국적별 對韓투자기업수를 보면, 일본, 미국, 독일이 고용인원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말레이시아 등 금융 허브국들이 국내 다수의 기업에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현황에 있어서는 상위 15개국 순위에 들지 않았던 중국이 투자기업 수 순위에는 4위에 랭크되었으며, 중국의 對韓 투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용창출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모기업 국적별 외국인투자기업 수>

(단위: 명)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본	1,958	1,952	1,945	1,950	2,038
미국	1,357	1,374	1,357	1,339	1,324
독일	327	336	336	351	360
중국	223	229	242	290	318
싱가포르	221	236	243	271	307
네덜란드	289	304	300	298	299
홍콩	206	229	240	229	242
영국	180	198	201	199	213

프랑스	158	163	165	163	163
스위스	114	121	120	126	140
버진아일랜드	97	106	122	125	127
케이만군도	85	97	100	101	103
대만	98	95	93	92	97
캐나다	72	74	73	69	78
말레이시아	92	81	72	69	62

주: 2011년 기준 국가별 투자기업 순 상위 15대 국가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

다. Invest KOREA를 통한 고용현황 및 특징

□ KOTRA에서 외국인투자유치 부문을 담당하는 Invest KOREA는 한국의 국가 IPA(투자진흥기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옴

-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국민경제 기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유치 금액에 기반하여 평가하던 기존의 기준에서 Invest KOREA의 고용 기여도(신규창출 및 유지)측면의 성과를 측정해 볼 필요성이 제기
- 실제 다른 국가들의 IPA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기반 하여 외국인투자유치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경제 활성화 및 성장에 기반이 될 수 있는 투자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
- KOTRA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 지원 및 육성과 함께 신규 고용창출과 연계한 전략적 유치계획 수립을 위해 외투기업의 고용효과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주요국 IPA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핵심적인 성과지표의 하나로 ‘고용창출(유지)’을 제시

- IPA의 고용창출 산정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각 국가별로 자체 기준에 의한 계산방식을 사용

<글로벌 주요 IPA의 핵심 성과지표 현황>

기관명	핵심 성과지표
Invest HK(홍콩)	프로젝트 완료 건수, 고용(창출)
EDB(싱가포르)	고정자산 투자액, 고용(창출), 비즈니스 지출액
Austrade(호주)	프로젝트 건수, 투자유치액, 고용(창출/유지)
UKTI(영국)	고용(창출/유지), 프로젝트 건수(고부가산업, R&D 등), 투자가 만족도
GTAI(독일)	프로젝트 발굴건수, 지방정부 이관 프로젝트 수, 고용(창출)
IIFA(프랑스)	고용(창출/유지), 프로젝트 건수, 지방정부 만족도, 미개발지역 투자유치 지원 건수
NFIA(네덜란드)	고용(창출/유지), 투자유치액, 프로젝트 관리 건수
IDA Ireland(아일랜드)	프로젝트 건수, 고용(창출)
JETRO(일본)	프로젝트 발굴/지원/유치 성공 건수, 지방도시 투자유치 건수/비율/성공 등

자료: 각 국가별 IPA의 홈페이지 및 Annual Report 공시자료 정리

- 영국과 네덜란드는 투자 발생 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일정기간동안의 고용계획(예상치)을 조사하여 이를 고용실적으로 발표하며, 독일은 IPA가 주정부에 중개해 준 프로젝트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용 인원을 발표
 -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IPA가 국가 정부부처 내에 존재하는 관계로 국가전체의 고용실적을 IPA의 고용실적으로 발표하며, 스페인도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발생한 국가전체의 총 누적 고용수를 공시
- ☐ Invest KOREA의 고용기여(신규창출 및 유지) 측정을 위해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 등록된 기업들 중 최근 3년 이내 신규투자 또는 증액 투자와 관련하여 Invest KOREA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외투기업의 고용보험자료를 통해 자체 실적을 산정
- Invest KOREA로부터 다음의 투자가 지원 8단계 중 최소 3가지 이상의 지

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 (투자가 지원 8단계 : 1단계(프로모션), 2단계(인콰이어링), 3단계(투자가 방문), 4단계(사절단 지원), 5단계(프로젝트 발굴), 6단계(투자가 방한 지원), 7단계(투자신고), 8단계(투자도착))

- Invest KOREA의 지원을 받은 외투기업이 창출/유지한 고용인원을 지원시점부터 3년간 기여실적으로 집계
- 외투기업의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의 최초 투자신고 후 비즈니스 안정화(매출 또는 생산이 예상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에 통상적으로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근거로 설정
- 실제로 제조업의 경우 투자신고 후 법인설립까지 6-12개월, 부지매입 및 공장설립 12개월, 공장 준공 및 시험생산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
- UKTI(영국)의 경우 투자 발표 후 4년간의 신규 고용창출 계획치, NFIA(네덜란드)의 경우 3년간의 고용 예상치를 실적으로 포함

<Invest KOREA의 고용 기여 현황>

(단위: 명)

연도	전체 외투법인 고용 ¹⁾	Invest KOREA 기여고용 ²⁾	Invest KOREA 기여율	Invest KOREA 기여신규고용 ³⁾
2007	333,050	41,550	12.48%	
2008	351,958	51,149	14.53%	6,476
2009	337,874	50,921	15.07%	5,434
2010	341,654	56,697	16.59%	3,790
2011	369,171	71,766	19.44%	9,814

주1):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중이 반영된 수치

주2): 분석대상년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Invest KOREA의 지원을 받은 외투기업이 당해 말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총 합(지분을 반영)

주3): 전년대비 순수 신규 고용증가 분(지분을 반영)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에 자체실적을 반영하여 산출

□ 2011년 말 기준 Invest KOREA 기여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71,766명으로 전체 외투기업의 고용 중 19.44%를 차지

- Invest KOREA 기여 고용은 분석가능 시점인 2007년의 41,550명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투자 고용 대비 기여율도 2007년 12.48%에서 2009년 15.07%, 2011년 19.44%로 증가
- Invest KOREA 기여 신규 고용인원은 2008년 6,476명, 2009년 5,434명, 2010년 3,790명, 2011년 9,814명으로 연도별 큰 등락 편차를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고용자료 축적과 관찰이 이루어지면 보다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2011년 Invest KOREA의 신규고용창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총 9,814명 중 제조업 29.9%, 서비스업 69.8%, 기타 0.3%의 분포를 보임

<2011 Invest KOREA 기여 신규고용의 업종별 분류>

업 종	신규고용창출 인원(명)	비중
제조업	2,933	29.9%
서비스업	6,847	69.8%
-고부가서비스업	2,371	
-기타서비스업	4,476	
기타(농림수산업, 광업, 전기가스)	34	0.3%
합 계	9,814	100%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에 자체실적을 반영하여 집계

- 신규고용창출인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6,847명의 신규고용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제조업의 신규고용은 2,933명으로 서비스업의 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중 물류·유통, 금융, 전문서비스업 등의 고부가서비스업에서 2,371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2011 Invest KOREA의 고부가서비스업 고용창출 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중분류)	신규고용창출 기업 수(사)	신규고용창출 인원(명)
도매 및 상품중개업(46)	91	1,409
운수업(49~52)-물류	10	6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22	159
금융 및 보험업(64~66)	18	290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31	29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4	122
교육 서비스업(85)	2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2	9
합 계	182	2,371

자료: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과 고용보험데이터 연결 자료에 자체실적을 반영하여 집계

- 향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서비스 산업과 관련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유치 계획 수립이 필요

4. 고용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제

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고용효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편

-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확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이 국내기업의 투자만으로는 경제수준의 유지 및 성장에 있어 한계가 존재
 - －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고용창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기술의 저비용구조 고용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산업 및 발전방향과 부합하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함
 - － 국가 차원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결국 최대한 많은 고용창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의 분배 및 소비 진작이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 한국의 경우 고용창출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측면에 대한 고려는 부족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기준이 대부분 투자금액, 고도기술적용 여부 등과 같이 초기 투자 조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제적 기여도 및 고용창출과 같은 사후적 성과에 기반한 지원과 평가항목은 간과
 - － 고용효과 또한 사후적 성과로, 투자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 초기에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고용관련 지표를 공시하는 글로벌 IPA의 경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예상인원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투자지원 심사 시 반영
-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과 관련된 지원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관련 통계데이터의 확보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

□ 투자자 지원 평가는 물론 투자유치기관의 실적평가에도 고용관련 항목을 반영

- Invest KOREA의 투자유치 실적 평가에 있어 목표금액 달성을 비중을 완화하고 고용창출 및 장기적인 국가경제 기여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지원에 있어서도 고용창출 관련 투자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Invest KOREA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투자유치업무의 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시스템을 강구

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투자기업의 정책적 지원

□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로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투자선진국들은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대부분 지역개발 및 고용창출효과에 근거해서 적용

- 미국의 경우 조세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특수지역 및 재개발지역에 투자하여 지역주민을 고용 시 1인당 일정 금액의 세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
- 프랑스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제도 적용에 있어 지역 활성화 목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과 함께 고용창출인원도 심사의 대상으로 포함

- 영국 또한 지정된 특정 지원지역(Assisted Area)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인원수, 프로젝트로 인해 보호되는 고용인원 및 투자금액을 모두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결정

□ 장기적으로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지원은 내국기업투자,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유턴투자 등 투자주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투자로 인한 국내경제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함

- 스웨덴의 경우도 낙후된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외 자본을 불문하고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업종과 함께 기업별 고용효과를 검토하여 고용실적에 따른 분할지원 혹은 추가지원이 가능한 유연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유럽 대형 유통망 조사	2012.1
12-00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장구조 변화와 유망시장	2012.1

☐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유럽한류와 국가브랜드 조사 보고서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대학생들 중심으로-	2012.2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2
12-002	대이란 추가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	2012.2
12-003	일본·인도 CEPA발효이후 가속화되는 일본기업의 인도진출과 대응	2012.2
12-004	미얀마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12.3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러시아연방 경제산업개발 프로그램 - 2006~2015 러연방 체육 및 스포츠 발전-	2012.1
12-002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2012.1
12-003	2012 글로벌 마켓 동향 및 진출 전략	2012.1
12-004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2.1
12-005	한국 투자가이드	2012.1
12-006	Doing Business in Korea	2012.1

12-007	韓國投資指南	2012.1
12-008	韓國投資ガイド	2012.1
12-009	FDI 및 초국적기업 운영 통계에 대한 UNCTAD 훈련 교본 (UNCTAD Training Manual on Statistics for FDI and the Operation of TNCs)	2012.2
12-010	201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2.3
12-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1	2012.3
12-012	韓-美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대응전략	2012.3
12-013	해외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2년 개정증보판)	2012.4
12-014	중국 화상경제권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2012.3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 KOTRA 해외공공조달포럼	2012.1
12-002	2012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2.1
12-003	2012년 중국-중남미 포럼	2012.1
12-004	인도-인도네시아 포럼	2012.1
12-005	2012 러시아 포럼	2012.1
12-006	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	2012.2
12-007	한-미 FTA시대, 중소기업 새로운 길 열렸다	2012.2
12-008	위기 속의 유럽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2012.2
12-009	떠오르는 희망, 신흥시장을 선점하라	2012.2
12-010	한-CIS 비즈니스 포럼	2012.3
12-011	한-미 FTA 활용, 美 보안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2.3

작성자

◆ 외국인투자정책센터 김동희 선임연구원

감수

◆ 투자정보팀 박용수 팀장

KOTRA자료 12-015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2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